

이화여성신학소식



발행인 : 백은미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120-750)

전화 : 3277-3278~9 / 팩스 : 312-2062 / <http://home.ewha.ac.kr/eiwtis> / E-mail : E600067@ewha.ac.kr

권두언

신학이 호구지책인가?

안선희

기독교학부 교수

한국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들의 퇴행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언론에 자주 나오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언론의 관심을 벗어나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교인수와 헌금액수가 줄어들면서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재정문제로 인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목회자를 위한 제대로 된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목회자들이 자신이 목회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는 자기성찰 과정도 필수적이다.

‘목회자들도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다’라는 일반론에 기대어 그들로 하여금 세속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기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관대한 처분 같다. 그런 논리라면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목회하기보다는 차라리 목회를 버리고 대놓고 돈벌이에 나서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세속적 사업을 도모하는 보통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모두의 바람이다. 이런 점에서 결혼하여 아들딸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산다고 해도 생계형 목회를 해서는 곤란하다. 생활인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구도자의 자세를 갖추 필요가 있다.

목회자를 비판하는 눈으로 우리 신학도를 바라본다. 현대신학은 교회를 자본주의사회 속에 존재하는 대안공동체이며 대항문화의 진지(陣地)로 이해한다. 우리 신학도가 교회를 이런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려면 도(道)는 재껴두고 생활만 좇으면 곤란하다. 편리와 풍요를 추구하는 생활인이 아니라 불편과 가난을 감내하는 구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목회자를 향해 쏜 비난의 화살이 방향을 바꿔 우리를 겨눌 수 있다. 교회 밖 사람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조롱할지 모른다. 목회자나 신학도나 종교인다운 내용도 없고 아우라도 없다고 비판할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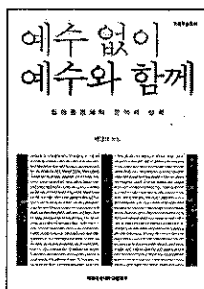
아니, 보다 더 큰 문제는 거울에 비칠 우리 자화상이 초라하고 혐오스러워진다는 데 있을 것이다. 구도의 길은 고달프고 고독하지만 의미 있고 아름답다. 이화신학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것이 아닐까 싶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이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신간소개

2013년, 반가운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대 기독교학부와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께서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완성한 책들을 살펴보면서 신앙과 신학의 자리를 새롭게 조망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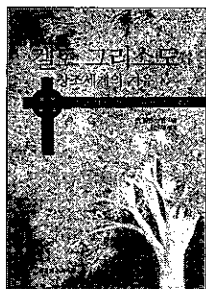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 요한공동체의 문학과 신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이 책은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신학과 문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흔히 요한복음서는 '영적인 복음서'로 알려져 있지만 복음서의 뒤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요한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 이 책은 요한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요한공동체의 역사적 정황과 요한의 신학이 어떻게 상응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한이 사용한 문학적 기법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요한공동체가 당시 유대교와 겪었던 갈등과 고통스런 사건들이 요한복음서의 예수 이야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사회적이고 역사적 상황, 그리고 요한공동체가 연루되었던 당시의 갈등들을 밝힘으로써 요한복음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최초의 요한복음서 독자들이자 요한 사유의 주체였던 요한공동체의 치열한 영적 경험과 고백의 과정을 보다 가까이 들여다봄으로써 요한복음서를 통진

적으로 이해하고 본문의 영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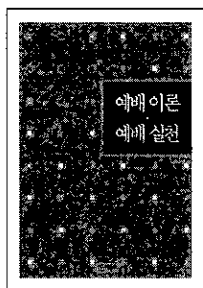
존 필립 뉴엘 『켈트 그리스도- 창조세계의 치유』 장윤재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13



이 책은 치유,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힐링' (Healing)에 관한 내용으로서, 특히 '창조세계의 치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저자인 존 필립 뉴엘(J. Philip Newell)은 켈트 그리스도교 영성을 연구하는 학자인 동시에 시인이며 목사다. 그는 이웃과 세상을 외면하고 나 홀로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를 비판한다. 내 이웃이 고통 받고, 지구가 산산이 부서져 산음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치유되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한다. 또한 물질세계와 분리되어 현실을 초월하는 구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소위 영성이라 함은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켈트 영성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세상에서 떼 내어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창조세계의 신성함을 직감적으로 이해하는 켈트 영성에 매료됨에 따라 저자는 특별히 켈트 영성을 현대세계와 연관 짓는 일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그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마복음서』, 『요한의 비밀복음서』, 『요한행전』과 이레네우스, 에리우게나, 테이아르 드 샤르댕 등 위대한 켈트 사상가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더불어 저자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편 가르는 종교, 지구의 생명체들은 다 망해도 인간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교리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을 긍정하고 품는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제안한다. 독자들은 켈트 그리스도교 영성을 통해 지금의 세계를 신비적·상징적·신화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과 더불어 근대 물질주의와 종교적 이원론에 의해 상처받고 신음하는 창조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선희 『예배 이론·예배 실천』 바이박스,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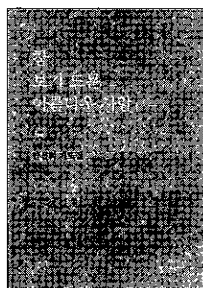
“첫째, 그리스도교 예배는 다른 메시지들과의 미론적이고 실질적인 차이점을 지녀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교 예배는 변화되고 있는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서 문화적 거리를 두면서 신앙을 표현하

고 형상화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교 예배가 근원과 본질에서 세속 문화에 대한 종말론적인 항변을 강조해야 한다.”

이 책은 현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앙생활의 기반인 예배를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가에 대해 예배학의 측면에서 분석한 책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반인 동시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기에 다른 어느 것보다 신앙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요한 예배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도

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학적인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 책은 한국 교회의 예배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그 실천 방안으로 몸 예배, 여성 예배, 열린 예배, 청년 예배와 같은 예배 갱신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신앙인과 신학을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예배 갱신은 형식의 다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책을 통한 모색이 중요한 이유도 그러한 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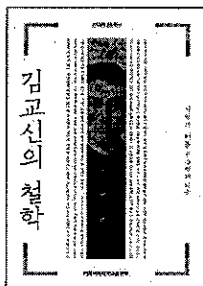
안선희,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사람』 꿈꾸는터, 2013



“우리 젊은이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웃 사랑에 해 뜨게 하시고, 나뭇을 위해 낭비하는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책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채플과 행사들에서 드러진 기도를 엮은 책이다. 반복되는 진부한 언어의 기도로는 신앙의 지평을 확장할 수 없고, 교회 언어에 갇힌 기도는 비기독교인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저자는 기도를 통해 ‘강제’로 채플에 참석한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따라서 저자는 하나의 형식으로, 행사 순서 중의 하나로 전락해버린 ‘기도’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써 내려갔다. 무엇보다 매주 일곱 번, 2천 8백 석을 채우는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생각하고 묵상한 흔적이 기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누군가를 위해 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사람들이 기다리던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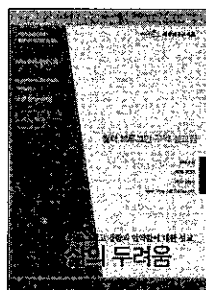
양현해, 『김교신의 철학 - 사랑과 여흥』, 이화여
자대학교출판부, 2013



이 책은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 사상가이
자 교육자 그리고 사회평
론가로서 활동했던 김교신
의 철학과 삶을 다룬 연구
서이다. 김교신은 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기반으로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주

체적인 기독교 신앙과 교회라는 형식적 울타리를
벗어나 성서를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무교회주
의를 설파했다. 이 책은 이러한 김교신의 주체적
이고 실천적인 기독교 사상과 삶이 드러나 있는
일종의 평전이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의 종교
관과 철학은 민족적 정체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
던 식민지 시대는 물론이고, 서구에 대한 뿌리 깊
은 종속성으로 인해 여전히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
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계와 지성 사회에도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그의
철학이 탄생하게 된 당시의 사회상과 스승인 우치
무라 간조의 사상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수 있다.
김교신의 행적에 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요즘, 이 책은 독자들에게 역사와
소통하는 기독교인이자 교사, 언론인으로 살아가
고자 했던 김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줌으로
써 자기반성과 쇄신이 요청되는 한국 기독교의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전해줄 것이다.

월터 브루그만, 『삶의 두려움 - 아픔 그리고 강
함과 연약함에 대한 설교』 이윤경 옮김, 대한기
독교서회, 2013



“제가 여기에서 추구하
는 해석학적 노선들이 설
교를 하는 자와 듣는 자 모
두에게 무언가를 제시하고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 해석학적 노선들은 구
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성
서를 교회의 진원지로 삼

고, 선포 사역으로 생명을 불리일으키고,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부
여하는 것입니다.” - 머릿말에서

이 책은 한국구약학연구소가 기획한 ‘구약사상
문고’의 다섯 번째 책으로,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이 쓴 구약 설교집이다. 월터 브
루그만은 조지아 주의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구약
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다. 그는 이 책에서 인
간 삶의 영원한 주제인 삶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구약의 본문을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나갔다. 그는 22편의 설교에서 오경, 예언서, 성
문서 그리고 구약을 인용한 신약성서의 본문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이 설교집
을 통해 구약성서 세계의 사회적 특성과 본문을
볼 수 있는 창조적인 관찰력 그리고 각 인물과 사
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며 인간 삶의 깊은 울
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술강연회 참관기

김나미 박사(미국 Spelman College 종교학부 교수, 이대 기독교학과 91년도 졸업)의
“국경없는 여성신학하기? 도전과 과제들” 강연을 듣고

최 평 강 (기독교학부 4학년)

“어느 마을에 중요한 문제가 생겨 한 젊은 랍비는 6명의 지혜로운 랍비들을 초대해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했으나 7명의 랍비가 모였다. 음식이 모자랄까 걱정했던 젊은 랍비는 초대받지 못한 분은 자진해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뜻 밖에도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늙은 랍비가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나갔다. 그는 초대 받지도 않았는데도 잘못 알고 나와 있던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읽고 또 읽었던 탈무드의 한 이야기가 왜 떠올랐던 것일까?

5월 13일에 ‘국경 없는 여성신학하기? 도전과 과제들’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시작되자마자 김나미 선생님이 참관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마을에서 신학자들과 환경미화원 중 한 그룹을 없애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없애겠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사실 답은 볼 보듯 뻔했지만 다들 쉽게 손을 들지는 못했다. 물론 어렵게 손을 든 학생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떠나야 한다”고 답했다. 이 질문은 김나미 선생님이 박사과정 중의 한 세미나에서 받았던 질문으로, 당시에도 이 질문에 대답한 대다수의 학생들 역시 우리가 했던 답과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위의 탈무드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진정한 신학자라면 자진해서 마을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김나미 선생님은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직접적인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논하기 위한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하셨다. 즉, 신학을 할 때 필요한 덕목은 겸손인데, 이러한 겸손은 신학교육을 사치라고 여길 때 생기고, 신학자들은 그러한 사치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기보다는 감사하고 책임감을 지니고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득 든 생각은 책임감을 지고 마을에 남아 신학을 공부해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간단하게 말해, 환경미화원들이 떠나면 되는 쉬운 문제가 아닌가 싶었지만, 우리가 왜 이리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답하기 어려워하는지는 예나 지금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처한 열악한 일터 환경과 급여와 같이 그들의 생계유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어쩌면 우리는 신학자들과 환경미화원들을 사회의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으로 나누어 인식했기에 대답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취업난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요즘 젊은 세대인 청년들이 ‘돈이 되지 않는 전공’인 신학을 택하여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사

치'를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나미 선생님은 신학함이 "사치"가 아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내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여성 신학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나를 포함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신학을 함에 있어서 서구의 백인 중산층 남성들에 의해 오랜 시간 쌓아온 틀과 굴레의 신학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사고능력과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의 신학이야말로 자본주의와 실용주의로 공공 일어붙은 이 시대를 녹여줄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경없는 여성신학하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경 없는 여성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도전들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역설하셨다.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들을 여성신학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은 매우 신선한 일이었다. 똑같은 역사적, 정치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국인, 이대생, 기독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한 가정의 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 나아가 포괄적으로는 한 인간으로서 사건을 보는 관점은 각각 다르고, 각 위치에 따른 문제의식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 하나만 골라서 그 관점에서만 문제를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나와 이웃이 처한 상황과 그

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보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김나미 선생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셨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희망'이란, 추상적인 희망이 아닌 분노와 용기의 희망이다. 다시 말해 불의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여러 시도들에 동참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대학시절 행동할 수 있는 분노의 불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청년들은 미래에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물들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꿈꾸는 사회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의 부정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분노의 불꽃을 마음에 담아 나의 존재와 나의 위치를 인식하고 용기를 갖고 사회의 잘못을 변화시키려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이 세미나를 통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된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 그리고 우리는 보다 더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고민을 도출해 내야하고 또한 깨달아야 한다. 또한 역사적 혹은 현실적인 상황에 둔감했던 나를 일깨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매일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다가왔던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뜻 깊은 시간을 제공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김나미 선생님께 감사를 표한다.

농촌선교봉사 참관기

2013년 여름 다락방 농촌선교봉사를 다녀와서

서 승 현 (신학대학원 수료)

신촌 기차역을 뒤로 하고 금화터널을 향하는 대로변을 끼고 늘어선 현대식의 건물들 사이로 여전히 오랜 세월을 간직하며 고풍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협회가 있다. 다락방 전도협회는 1960년 4월 김활란 선생님을 중심으로 발족된 이래 지금까지 이웃을 돕고 선교사들을 섬기며 농촌선교봉사와 해외선교봉사를 통해 이화의 기독교정신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해왔다. 매일의 삶에 바빠 자칫 선교에 대해 잊어버리기 쉬운 세상에서, 다락방의 조교업무를 하며 선교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음은 큰 행운이었던 것 같다. 다락방 조교로 그리고 신대원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여름, 신록이 우거진 7월 나는 선교장학생들과 다락방 전도협회의 남진희 전도사님과 함께 3박 4일의 일정으로 농촌 선교봉사를 떠났다(7.10-7.13). 한 학기 동안 다락방 조교로 일하여 업무는 손에 익었지만 선교봉사를 떠나는 것은 처음인이라 설레는 마음이 앞섰다. 우리의 주된 업무는 노방전도와 농촌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봉사에 앞서 기도로 준비했다. “흠으로 돌아가자” 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혹은 수업을 통해 많이 듣고 마음 깊이 생각한 이야기지만, 흠을 만지는 일조차 흔치 않았던 도시 토박이에게 농촌이란 부끄럽게도 마음 한 편에 묵혀둔 피상적인 이야기같이 느껴졌다. 마음이 지향하는 바는 삶에 녹아들지 못하고, 지식사원의 수궁과 삶의 자리의 거리감으로 인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

는 포식자적 역할, 수직적 차원에서의 관성의 고리 속에 묻혀 버렸기 때문이라. “흠으로 돌아가자” 수업을 통해 마음으로 머리로 끝없이 외쳐왔던 흠의 삶을 짧은 시간이나마 맛보고, 마비되어 버린 마음을 되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두근거렸다.

4시간 정도를 달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전남 화순 일심 리. 한여름의 강렬한 햇빛으로 아지랑이가 춤추는 길의 끝에서 화순 순복음 중앙교회를 만났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과 네 딸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는 이 교회는 아늑하고 소담한 맛이 어우러진 작은 교회였다. 우리는 교회의 게시판 작업과 노방전도로 이틀을 보내고, 셋째 날 새벽7시, 벚섯 농장으로 향했다. 새송이의 서식을 위해 섭씨 2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벚섯창고에는 마트에서 쉽게 보았던 미니 새송이들이 자양분이 채워진 깊은 유리병 위로 올망졸망 고개를 내어 밀고 있었다. 생명, 고 작은 것들이 자신도 생명이라며 안간힘을 쓰며 머리를 치켜든 모습에 뭉치 모를 경이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작은 생명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 벚섯의 몇 십 배는 족히 될 병의 양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잊었던 감사가 떠올랐다.

귀여운 벚섯구경도 잠시, 짐을 내리고 벚섯창고 밖으로 나갔다. 무성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콩이었다. 먹는 것에만 익숙했지, 콩을 어떻게 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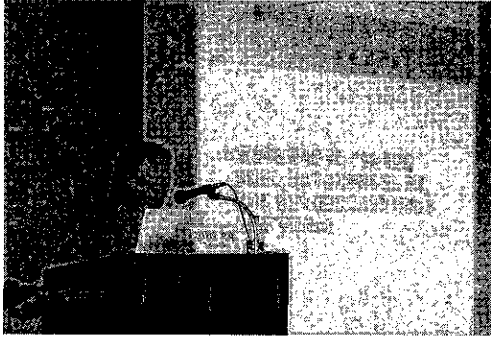
우고 수확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막연히 고추처럼 따면 되겠지 하던 생각이 무색하게, 장갑을 낀 손 위로 날이 시퍼렇게 선 낫이 주어졌다. 유일한 청일점인 전도사님을 포함하여 우리 팀의 어느 누구도 낫질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낫질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낫을 잘못 휘두르다가 팔다리라도 베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별을 먹고 질겨져버린 콩줄기의 뽕뽕함이 더해진 탓이다. 첫 번째 밭의 푸르름이 창고 앞에 쌓여지고 다음 밭으로 들어가는데 한쪽 편에서 푸드덕~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날아올랐다. 난생 처음 보는 평이었다. 밭을 덮고 콩을 심고 거름에 비료까지... 보지 않아도 보아질만한 땀방울의 노고가 알미운 평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생각하니 콩밭에서 몇 시간 지내지 않은 내가 괜히 약이 오른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저 평을 휘휘 쫓고 묵묵히 콩줄기를 잡으실 뿐이다. 결과 중심적인 세상 속에, 내가 힘들여 낸 결과를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는 서울내기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묵묵함에서 흙의 삶을 체험하고 있었다.

작은 밭 두 개에 빼곡히 심겨져 있던 콩들이 트럭에 실렸다. 이동이 아닌 분류를 위해서다. 노랑게 마른 콩깍지는 기계로 콩수확이 가능하지만 아직 파랗게 영글어 가는 콩깍지는 수작업을 통해서만 낱개의 콩을 얻을 수 있기에 부지런히 손을 놀려 분류를 시작했다. 단순 반복의 업무 탓일까,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서는 시원하게 땀을 식혀주는

자연의 바람이 느껴지고, 새소리와 매미 소리가 들려왔다. 영원할 것처럼 정지된 시간 속에서 새삼 세상과 자연이 보이고 진짜 나 자신이 보이는 듯했다. 언제인지 어디인지도 모를 끝을 향해 늘 속도를 내며 달려야 하는 현대인의 삶. 그 속에서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던 자연이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들어왔다. 많은 말로도 마음을 동하게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한마디 말없이 마음 전체를 울리는 자연의 힘. 그 힘 속에서 고요한 그러나 거대한 하나님께서 느끼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또다시 생각했다.

다락방 전도협회에서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선교라 생각하고 활동한다고 한다. 8박 4일의 짧은 시간으로 화순을 뒤집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밭에 심겨진 3000개의 모종, 노방전도를 통해 만난 아이들의 가슴에 심기운 복음의 씨앗들, 새벽 제단을 쌓으며 교회를 위해 부르짖었던 기도, 이 기간 가운데 만나고 미소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상이 각 개인의 삶을 바꾸고 우리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는 확신에 찬 기대를 가져본다. 짧은 시간 화순에서의 삶은 농촌과 단절되었던 마음의 연결고리를 채워주는 기회가 되었다. 기도로, 그리고 다음 방문으로 작지만 꾸준한 발걸음으로 농촌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다락방, 그리고 내가 되길 소원해본다.

◆ 포토앨범 ◆



학술강연회의 김나미 박사(2013.5.13)



강연에서 질문하는 기독교학부생(2013.5.13)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봄학기 중강(2013.6.4)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가족치료워크샵(2013.7.1)



다락방 농촌선교봉사에서의 공 수확(2013.7.10)



다락방 농촌선교봉사를 마치며(2013.7.13)



교내 소식

■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UMW(United Methodist Women) 회원 10명 방문
일 사: 2013년 9월 2일(월) 오후 2시
장 소: 대강당 204호
- 국제학술강연회
강 사: Dr. Laliene Ractor(President of the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주 제: Selfobject Experiences and
Gendered Representation of God
일 사: 2013년 9월 5일(목) 오후 2시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이화목회상담아카데미 기출학기
일 사: 2013년 9월 16일~12월 2일, 매주 월요일
장 소: 이화여대 대학교회 106호
문 의: 010-9830-9834, www.epcc.or.kr
-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주 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일 사: 2013년 10월 4일(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대학교회
주 관: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주 차: 구약학회
- 박사후 세미나
일 사: 2013년 10월 28일(월) 오후 3시 30분
장 소: 대강당 204호
- 여성신학논집 제9집 발간 예정
일 사: 2013년 10월 넷째 주
문 의: 이화여성신학연구소, <http://ciwis.ewha.ac.kr/>
- 이화신학공동체 콜로키움
일 사: 2013년 11월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문 의: 이화여성신학연구소

■ 기독교학과

- 기독교학과 개강예배
일 사: 2013년 9월 10일(화) 오후 5시 30분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신학대학원

- 신학대학원 개강예배
일 사: 2013년 9월 10일(화) 오후 5시 30분
장 소: 대학교회 소예배실

■ 교수 동정

- 백은미 교수
- 보직 발령: 기독교학부장, 기독교학전공주임교수
- 안선희 교수
- 보직 발령: 신학대학원교학부장
- 이윤경 교수
- 보직발령: 교목



교외 소식

■ 한국여성신학회

-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연합 심포지움
일 사: 2013년 9월 27일(금) 오후 12시
장 소: 이화여대 LG컨벤션홀(예정)
주 제: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 문화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 제42차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사: 2013년 10월 18일(금)~19일(토)
장 소: 온양관광호텔
주 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 12월 학술세미나
일 사: 2013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소예배실



대학원 입학안내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입학안내

1. 모집전공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기독교학과(성서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목회상담학, 예배학, 선교신학) 00명

2. 지원자격

- 석사학위과정
 - 2014년 2월 이전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박사학위과정
 - 2014년 2월 이전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구술

4.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3년 10월 8일(화)~10월 17일(목)
- 서류도착: 2013년 10월 18일(금) 17:00까지
- 전 형 알: 2013년 11월 9일(토)
- 합격자발표: 2013년 11월 27일(수)

5. 원서접수

- 원서접수:
 - (인터넷접수) <http://enter.ewha.ac.kr>
 - (방문접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 (우편접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120-750)

■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안내

1. 모집전공 및 인원

- 석사학위(Th.M)과정 신학과(성서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목회상담학, 예배학, 여성신학, 선교신학)

2. 지원자격

- 석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2014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구술

4. 전형일정

- 원서교부: 2013년 10월 28일(월)~11월 15일(금)
- 원서접수: 2013년 11월 6일(수)~11월 15일(금)
- 서류도착: 2013년 11월 18일(월) 17:00까지
- 전 형 알: 2013년 11월 23일(토) 10:00
- 합격자발표: 2013년 12월 6일(금) 10:00

5. 원서접수

- 원서접수:
 - (인터넷접수) (유웨이) <http://www.uwayapply.com>
 - (방문접수) 신학대학원 교학부(대학교회 103호)
 - (우편접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신학대학원 교학부(120-750)

Feminist Theology News

Table of Contents

■ Foreword	Sun Hee Ahn	1
■ New Books		2
■ Lecture Review		
Feminist Theology without National Borders? Its Challenges and Tasks		
.....	Pyung Gang Choi	5
■ Mission Trip Review		
Mission Trip of The Upper Room		
.....	Seung Hyun Seo	7
■ Photos		9
■ News		10



Ewha Institute for Women's Theological Studies

52, Ewhayeodae-gil Seodaemun-ku, Seoul, Korea 120-750

Tel. 82-2-3277-3278 Fax. 82-2-312-2062

Homepage: <http://home.ewha.ac.kr/eiwt>

E-mail: E600067@ewha.ac.kr